

'민통선 달린다'...경기도, 10월 DMZ 평화통일 마라톤

경기도는 오는 10월 6일 파주 임진각에서 '2019 DMZ 평화통일마라톤'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회는 풀 코스, 하프, 10km 달리기와 6km 걷기 행사로 나눠 진행합니다.

풀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리비교 사거리를 반환점으로 국도 37호선을 달린 뒤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 북쪽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 임진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경기도, '2019 DMZ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시작

10월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출발
풀, 하프, 10km 마라톤과 6km 걷기코스 등 마련



경기도가 민간인통제구역인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CIQ)를 돌아 나오는 '2019 DMZ 평화통일마라톤' 대회 참가자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10월 6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출발하여 DMZ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풀, 하프, 10km 달리기 코스와 병행하여 가족단위 모두가 함께 참가할 수 있는 6km 걷기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 코스(42.195km) 참가자들은 리비고 사거리와 남북출입사무소(CIQ)를 돌아 통일대교를 지나 임진각에 도착하고, 하프 코스(21.0975km)는 여우고개사거리와 남북출입사무소를, 10km는 군내삼거리를 반환점으로, 6km는 통일대교 북문을 각각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인기가수 공연을 비롯해 치어리더 공연, 평화 사진전, 소망 리본달기, 지역특산물 홍보관,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메달과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우수기록 달성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 등을 수여합니다.

참가방법은 오는 9월 22일까지 평화통일마라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비는 풀 코스 45,000원, 하프 코스와 10km 코스는 40,000원, 6km 코스는 35,000원이며, 기념품을 받지 않는 매니아로 신청하면 각 코스에서 20,000원이 감액됩니다.

KFM 경기방송 = 설석용 기자